단순 낭종 증상 없지만 커지거나 다수 발생땐 배·옆구리 통증

건강 바로 알기
신장 낭종

정 세 윤
광주기독병원 신장내과 진료과장

신장에 물이 차있는 주머니같은 병변
비유전성·유전성·선천성으로 분류
30세 이전 발견 땐 추가 검사 필요
고혈압·뇌동맥류 합병증 동반 될수도

건강검진을 받거나 다른 이유로 복부 CT나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우연히 신장 낭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환자들은 대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신장 낭종은 신장에 물이 차 있는 주머니처럼 보이는 병변으로,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고 발견되더라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 낭종은 흔히 '물주머니' 또는 '물혹'으로 설명되며, 대부분 양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단순 신장 낭종은 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다른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다.

신장 낭종은 비유전성, 유전성, 선천성으로 분류된다. 비유전성인 경우 단순 낭종으로, 10명 중 1명꼴로 발견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유전성인 경우, 다낭콩팥병이 많으며, 이 질환은 신장에 다수의 물혹이 생겨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뇌동맥류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다낭콩팥병 가족력이 있거나, 30세 이전에 낭종이 발견되거나, 낭종의 개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위해 신장내과에 내원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순 신장 낭종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신장 구조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의원위세뇨관에서 곁주머니가 생겨 형성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요관 폐쇄와 동반되어 기저막이 변화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단순 신장 낭종은 증상이 없다. 따라서 건강검진 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낭종이 작고 단순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크기가 커지거나 다수의 낭종이 발생하면 배나 옆구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드물게 혈뇨나 배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낭종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 낭종은 보통 초음파 검사나 CT·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발견된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낭종의 크기와 형태를 확인하고, 단순한 물혹인지 아니면 복잡한 구조를 가진 낭종인지 구별할 수 있다. 복잡한 낭종은 드물게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권장할 수 있다. 대개 6개월에서 1년마다 초음파나 CT 등을 통해 추적 검사를 하며, 악성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검사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

신장 낭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 대부분의 신장 낭종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증상이 없다면 단순히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낭종의 크기 변화를 체크할 수 있다. 그러나 낭종이 커지거나 증상을 유발할 경우, 수술이나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매우 드물게 낭종이 악성으로 변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낭종 모양에 따라 Bosniak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분류하는데, 낭종 벽의 두께, 격벽 개수, 모양, 석회화, 조영 증강 유무 등을 기준으로 I, II, IIF, III, IV의 다섯 단계로 나누고 치료도 달라진다.IIF일 경우 처음에는 6개월 간격 검진을 권장하며, III, IV로 분류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므로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야 한다.

광주기독병원 신장내과 정세윤 진료과장은 신장에 여러 개의 낭종이 처음 발견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장에 물혹이 생겼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신장 낭종은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며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낭종이 처음 발견되었거나 증상이 생기거나 낭종의 크기가 커지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주사실 병상 확대 143병상 규모

환자 대기시간 단축·업무 효율성 향상…지속적 시설 개선 최선

화순전남대병원 주사실이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됐다. 기존 94병상 규모였던 주사실은 49병상이 추가 설치되며 총 143병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 대기시간 단축과 간호사 업무 효율성까지 향상되면서 진료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주사실은 '제1주사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낮병동 전용으로 사용되던 침상이 일반 주사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돼 병상 회전율이 높아지고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는 낮병동 환자들을 위한 '제2주사실'이 신설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집중적인 전문 치료가 가능해졌다. 기존 2층에 있던 간편주사실은 3층으로 이전해 공간 배치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 접수 시스템에도 변화를 줬다. 키오스크 기반의 스마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의 접수 대기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대기 순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환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과 접수 및 안내 업무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시스템도 보강됐다. 환자 감시장치 10대를 새로 설치하고, 2병상당 1개 비율로 의료가스 배관을 확보해 긴급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문이 많아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환기도 원활한 점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동선과 의료장비 배치도 전면 재정비됐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사 처치의 정확성과 속도 역시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민정준 병원장을 비롯해 강호철 진료부원장, 배홍범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간호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단장한 주사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승원 기자 swseo@

시엘병원·몽골산부인과학회 공동 '시엘 국제 난임학회' 개최

시엘병원과 몽골산부인과학회가 공동으로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시엘 국제 난임학회'를 열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이번 학회는 시엘병원 최범채·최상준 원장을 비롯해 구화선 원장(베스트오브미의원), 김원화 교수(경북대 의대), 정미경 연구소장(서울라헬여성의원) 등 국내 난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준 높은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일본의 시오타니 마사히데 원장(하나부사 여성클리닉), 레오나 마츠모토 원장(마츠모토 여성클리닉) 등 세계 각국의 권위자들도 참여해 학회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학회는 ▲1부 '보조생식술(ART)의 최신 기술' ▲2부 '의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3부 '생식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약 200여 명의 몽골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자궁내막 수용성 진단 및 치료(구화선 원장) ▲AI 초음파 진단 테크닉(김원화 교수) ▲보조생식 분야에서의 AI 기술의 미래(정미경 연구소장) 등의 주제 발표는 현지 의료진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좌장은 시엘병원 최범채 병원장이 맡아 전체 학회의 깊이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몽골산부인과학회 주관으로 제정된 '시엘학술상(CL Academic Award)' 수여식을 열려 몽골국립병원 소속 우수 의료진 2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시엘병원은 2017년 몽골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외 분원을 설립했다. 이 분원은 본원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5명의 전문의료진과 30여 명의 현지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운영 중이다. 현지에서 '최우수 난임병원'으로 평가받으며 몽골과 러시아 의료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최범채 시엘병원 원장은 "이번 국제 학회는 난임 치료 기술의 글로벌 공유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 환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전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대병원, 복지부 '지역의료 연구역량 사업' 선정

지역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구축

전남대병원의 '광주·전남 융합 코어 기반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사업'이 정부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국립대병원 중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에 이어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연구 분야의 우수한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대병원의 '광주·전남 융합 코어 기반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사업'은 총 96억원 규모로, 오는 2027년 9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추진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원 지자체로 나선다.

이 사업은 지역의료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통해 추진된다. 먼저 지역의료 연구역량 제고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한 병원 내 코어 퍼실리티(Core Facility·거점시설) 장비를 구축해 지역 연구자들이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은 유전체빅데이터, 세포유전자치료, 바이오이미징 코어퍼실러티를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운영인력을 충원해 2026년부터는 개방,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역 대학병원 중심 연구 지원을 통해 병원 중심의 연구과제를 구성하고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특화과제 1과제(3세부 과제)와 지역 내 공동연구과제 5과제를 구성 완료했고, 과제개시 워크숍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의학연구의 네트워킹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의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의료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 의료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컨소시엄으로 결합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연구 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연구 모델을 구축하는 선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신 전남대병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과 더불어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이 대한민국 의료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의료 현안 해결과 동시에 미래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